



# 베테랑은 힘들다 新바람이 필요해

5일 오후 대구 시민야구장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KIA 타이거즈 경기 6회초 1사 1루에서 KIA 이범호가 좌전안타를 친 후 2루에서 삼성 2루수 나바로에게 태그아웃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이범호·김원섭 등 분전에도 후배들 주춤... '가을야구' 위기

### 젊음·패기로 분위기 반전을... 김 감독 "선수들 간 더 키져야"

젊음과 패기가 필요한 KIA 타이거즈의 9월이다. KIA에게는 뜨거운 여름이었다. 6연승 질주 속에 KIA는 후반기 돌풍의 팀이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순위 싸움에 뛰어 들었다. 한 때는 5위 자리를 지키면서 '가을 잔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10경기 2승8패로 부진, 쉽지 않은 5강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을 잔치'의 꿈은 남아있다. 뜻밖의 5강 싸움을 주도했던 베테랑들의 빈틈을 채워줄 젊음과 패기가 필요하다.

순위 싸움의 중심에는 베테랑들이 있었다. 프로야구 최고참 최영필(41)과 함께 16년차 김광수(34)가 부지런히 불펜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승리를 이어왔다. 답답한 타선에서는 김민우(36)가 공·수·주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면서 버텼다. 야수 최고참 김원섭(37)도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등 덕아웃에 승리의 분위기를 불고 왔다.

그러나 베테랑들의 분전에도 후배들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KIA의 위기가 시작됐다.

잘 버텨주던 최영필과 김광수가 흔들리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됐다. 여전히 공격에 불펜까지 흔들리면서 선발진까지 동시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실상 가장 매섭던 김민우의 방망이가 무뎠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김민우의 이름을 빼면서 배려를 해줬다. 김원섭도 십이지장궤양으로 고생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시즌 마지막 체력적인 열세에 빠진 베테랑들의 노련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배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나마 좌완 심동섭이 최근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운드 베테랑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좌완 임기준도 마운드 새 파워다. 지난 5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프로 첫 승리를 신고했던 임시 선발 임기

준은 선발 로테이션에 정식 합류해 남은 시즌을 보내게 됐다. 8일에는 2군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신인 좌완 김명찬이 처음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타석에서는 중고참급의 선수가 된 김주형의 분발이 필요하다. 발목 뺏겨서 제거 수술과 발목 부상 등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낸 김주형은 확장 엔트리가 적용된 1일 다시 1군 무대를 밟았지만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공·수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던 이범호가 지난 6일 대구경기에서 수비 도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김주형은 8일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신바람 행진을 이끌었던 젊은 포수 백용환·이흥구의 집착한 승부와 파워도 절실하다. 하위 타선에서 박찬호까지 차분하게 수 싸움을 해준다면 분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기태 감독은 "팽팽한 싸움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들이 있다. 상황에 집중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또 선수들 간 더 키져야 한다. 좋은 경험들이 될 것이다. 남은 경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치흥아, 미팅 들어가야지"

▲그래요? 필은 안 되나요? =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에 참가하는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 45명이 8일 발표됐다.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과 윤석민 두 선수만이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전해들은 김기태 감독의 반응은 "그래요?"였다. KIA 타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김 감독은 "필은 안 되나요?"라고 말하며 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뭔가 속은 것도 같고 = 남은 경기 '타

율 0.250'의 놓고 김기태 감독과 내기를 하고 줄 2년차 내야수 박찬호. 목표를 이루면 '상금 100만원',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캠프 무휴일'을 놓고 한 내기다. 박찬호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감독님에게 뭔가 속은 것도 같고 상금을 더 올릴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다. 계약은 줄 굵고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이 악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뛰겠다"고 언급했다.

▲치흥아 미팅 들어가야지 = 안치흥이 그리운 동료,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가 그

리운 안치흥이다.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안치흥은 휴가차 8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덕아웃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안치흥의 뒤로 야수진들이 전력 분석 미팅을 위해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 윤완주가 "치흥아 미팅 들어가야지. 오늘 대타로 대기하는 거다"며 웃었다. 이에 안치흥은 "제가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겠다"며 장난을 쳤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오늘 경기에 나가고 싶다.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가 그리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니 리, 인천 프레지던츠컵 출전 확정

뉴질랜드 교포 골퍼 대니 리(25)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다.

대니 리는 8일 발표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랭킹에서 10위를 지켜 상위 10명에게 주는 프레지던츠컵 출전을 확정했다.

대니 리는 8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33위에 올라 세계랭킹 25위에 자리했다.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을 끝으로 성적순으로 출전할 선수들도 확정됐다. 인터내셔널팀에서는 대니 리를 포함해 제이슨 데이

(호주),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애덤 스콧(호주),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브랜던 그레이스(남아공), 마크 레시먼(호주), 아니르만 라히리(인도), 찰 슈워젤(남아공), 통차이 짜이디(태국)가 출전한다.

/연합뉴스



## 제대 360일 남은 안치흥 "뛰고 싶다, 챔피언스 필드"

### 경찰청 휴가차 친정 날들이 KIA '가을잔치' 진출 응원 더 좋은 선수 돼 돌아올 것

안치흥의 즐거운 발걸음이었다.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린 8일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경찰청 야구단의 일경 안치흥이 휴가를 받아 친정 날들이 이어 나신 것이다.

안치흥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회포를 풀며 한 시즌을 돌아왔다. 2군 정규시즌은 최근 끝이 났다. 경찰청 소속으로 첫 시즌을 보낸 안치흥은 91경기에서 타율 0.359(270타수 91안타)로 12홈런 70타점을 기록했다.

안치흥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는데 야구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다. 똑같이 야구를 하고 지냈다. 그래도 떠나보니까 많은 것들이 더 소중한 것 같다. KIA에 대한 그리움도 크고, 이곳 사람들과

팬들의 함성, 챔피언스필드가 많이 그립고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제 360일이 남았다고 웃던 안치흥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친정팀의 가을 잔치를 응원하고 있다. 안치흥은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시즌 잘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서 가을 잔치에 가면 좋겠다. 응원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응원하겠다"고 웃었다.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지내왔던 지난 시간. 실 틈 없이 달려왔던 안치흥은 차분하게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남은 1년도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안치흥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내 역할이고 의무인 것 같다. 발전해서 팀에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즌이 끝났지만 긴장 늦추지 않고 몸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할 생각이 다. 복귀했을 때 당연히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좋은 선수가 되어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파울러, 도이체방크 우승...페덱스컵 3위 경승

### 배상문, PO 3차전 진출

리크 스텐슨(스웨덴·14언더파 270타)을 1타차로 따돌린 파울러는 올 시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포함, 2승을 올렸다.

페덱스컵 랭킹 22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파울러는 이날 우승으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스텐슨에 1타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파울러는 한때 3타차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14번홀(파4)에서 12m를 남기고 친 퍼트가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스텐슨을 1타차로 압박했다. 2013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플레이어스 챔피언인 스텐슨

은 16번홀(파3)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티샷이 워터 헤저드에 빠져 1벌타를 받고 세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다.

스텐슨은 3.5m 거리의 보기 퍼트를 넣지 못해 2타를 잃었고, 파울러는 단숨에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 나간 배상문(29)은 1언더파 283타로 공동 39위에 올라 70명이 나가는 플레이오프 3차전 출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